

◆ 북미

- 미국, 유전자정보 차별금지법 제정
- 미국, 중국 지진피해로 인해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 고조

◆ 유럽

- 알리안츠 2008년 신흥시장에서 10%의 높은 성장률로 주목
- 2009년 4월 영국의 비보험차량 운전자 관련 법안추진이 주목

◆ 일본

- 손해보험계 생명보험회사들 2007년도 신계약고 증가
- 대형 손해보험회사들 2007회계연도 이익 축소

◆ 중국

- 중국 은행업계가 주택구매 시 지진보험 강제 가입 추진
- 중국 지진피해, 보험회사가 적극적 구제에 나서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미국, 유전자정보 차별금지법 제정

- 지난 수요일 상·하원 모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유전자정보 차별금지법(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함.
- 동 법의 제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고용주나 보험사들이 앞으로는 질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성질을 가졌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종업원이나 피보험자를 차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됨.
- 동 법안의 지지자인 하원의원 Louise Slaughter는 “이것은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모든 미국인들에 있어 거대한 승리이자 우리 모두의 승리이다.”라고 자평함.
- 현재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는 검사는 1,000개가 넘게 존재하지만, 많은 이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른 부분에서 자신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까 두려워해 검사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임.
- 주법과 연방법은 이제 단체보험의 공급자들이 보험의 가입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임.
- 그렇지만 Evanston Northwestern Healthcare's Center for Medical Genetics에 방문하는 환자의 1/3은 아직도 그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들의 보험 커버리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의하고 있으며, 몇몇 환자들은 현금으로 계산하거나 가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힘.
- 동 법의 지지자들은 이 법을 통해 유전적 결과들과 관계된 치료법 연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촉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Chicago Sun-Times, 5/22)

□ 미국, 중국 지진피해로 인해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 고조

- 지난주 발생한 중국의 대지진을 통해 미국 내에서도 지진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구입의 필요성 등이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미국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은 밝힘.
- 미국에서는 매년 약 5,000건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1900년 이후 39개 주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50개 주에서 피해를 입었음.
- 1994년 Northridge 지진과 1989년 Oakland 지진은 보험 손실액을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됐으며 현재 가치로 볼 때 각각 200억 달러, 120억 달러의 피해를 야기함.
- 지진으로 인한 잠재 비용은 도시개발의 증가와 오래된 건물들의 지진 취약성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주들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부 캘리포니아보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조차도 지진보험에 가입된 주택소유자는 12%에 불과하며 이는 1996년의 30%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임.
- 지진은 미국에서 일반적인 가계종합보험이나 사업주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으며 이들 보험에서의 특약으로만 제공됨.
- 지진보험은 보통 총 손해액의 일정 비율로 면책금액(deductible)이 부가되는데 상품에 따라 2~20%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해주지 않음.
- 지진보험의 가격결정에는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며 예를 들어 건축물이 오래되어 지진피해를 경감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벽돌건물보다 목조건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짐.

(Insurance News Net, 5/21)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알리안츠 2008년 신흥시장에서 10%의 높은 성장률로 주목

- 유럽지역의 대형 보험회사인 알리안츠가 올해 신흥시장에서 10%의 성장률을 기록해 높은 평판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이사회 위원인 Werner Zedelius에 따르면, '우리의 목표는 발전하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적어도 연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함.
- 알리안츠는 2006년 사업계획에서 3~5년 이내 중앙 및 동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심의 26개 지역에서 150억 유로(234억 달러)의 수입보험료를 거수할 것이라 목표를 밝힌바 있음.
- 알리안츠의 2007년 수입보험료 실적은 128억 유로로 전년대비 24% 성장하였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88억 유로를, 동유럽 국가에서 40억 유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Zedelius는 지난해 신흥시장의 호조세에 따른 성장배경 및 알리안츠가 일부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빠른 기간내에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이라고 전함.
- 알리안츠는 러시아 보험회사인 Rosno*과 Progress-Garant**의 합병을 통해 수입보험료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으며, 중국에서는 2007년 약 3억 유로 이상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전함.
-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판매지역 확대를 비롯한 대리점 수를 현재 11,000개 에서 2009~2010년에는 40,0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2001년 러시아 선두보험회사인 ROSNO의 지분 45%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2007년 2월 21일 Rosno 그룹 지분의 97%를 추가로 인수함.

** 2006년 총수입보험료는 120백만 달러이며, 러시아 P/C보험회사 중 20위를 기록하고 있음.

(The Economic Times, 5/19)

□ 2009년 4월 영국의 무보험차량 관련 법안 추진이 주춤

- 정부는 최근 무보험차량의 증가세*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한 청사진(blueprint)을 계획하기로 하였으나, 2009년 4월의 본 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영국내 대부분의 지역은 무보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거나 범칙금이 낮아 무보험차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피보험자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BIBA의 Graeme Trudgill에 따르면 BIBA와 MIB(Motor Insurers' Bureau)는 관련 법안의 초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 전했으나, 기존에 제시한 기한까지 입법조치 및 시행을 완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최근 관련 단체들이 로비활동을 펼침에 따라 교통국(Department for Transport)은 BIBA와 MIB의 전반적인 관련 법안의 초안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무보험차량의 소유주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엄격한 벌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함.
- 이는 지난 도로안전시행지침 2006(Road Safety Act 2006)에서 자발적인 보험가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작년에서야 입법조치 됨에 따라 그 진행이 늦어진 것으로 분석함.
- 따라서 BIBA의 Eric Galbraith는 MIB의 국장인 Ruth Kelly에게 이와 관련된 법안을 요청한 것이라 전했으며, 이로써 올해 BIBA의 공개토론회 주제를 무보험 운전차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련 방안을 다루기로 결정한 것임.
- BIBA에서는 200백만 명의 무보험차량 운전자들이 연간 4억 1,700만 파운드의 금액을 보험에 가입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 법안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자동차보험 자격 취득여부를 BIBA가 자동적으로 전달받게 된다면 연간 1,100만 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법안으로 추진 중에 있음.

(Insurance Times, 5/22)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손해보험계 생명보험회사들 2007년도 신계약고 증가

-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손보계 생명보험회사 6개사들의 2007회계연도 영업실적이 5월 23일 집계되었음.
- 손보계 생명보험회사들의 주력상품인 체증형 정기보험의 판매 축소전략의 영향으로 신계약 수입보험료가 후지생명보험을 제외한 5개 생보사에서 감소하였음.
- 체증형 정기보험은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을 손실금 산입할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국세청이 작년 손실금 산입 제도의 개정을 추진 중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각사 모두 판매를 축소하고 있음.
- 동 보험은 보험료가 고액이기 때문에 히마와리생명이 전년 동기대비 53.2% 감소하는 등 각사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니혼코아생명보험과 후지생명은 체증형 정기보험을 취급하지 않아 별다른 영향이 없었음.
- 다만, 인수한 계약의 보장금액을 나타내는 신계약금액은 의료보험이나 사망보험 등 보장성 상품의 높은 판매로 인하여 4개 생보사에서 성장하였음.
- 그 중에서도 키라매키생명은 2006년 11월에 판매하기 시작한 「신의료보험」 등 의료보험의 판매 증가로 26.1% 증가하였음.
- 또한, 아이오이생명은 보험업법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책임준비금을 적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최종 이익을 계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히마와리생명은 105억엔, 후지생명은 10억엔의 최종 이익을 계상하였음.

(FujiSankei Business I, 5/24)

□ 대형 손해보험회사들 2007회계연도 이익 축소

- 일본에서 영업 중인 대형 손해보험회사 6개 회사들의 2007회계연도 영업 실적이 확정되었음.
 -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악화로 주력인 자동차보험이 침체함에 따라 수입보험료는 아이오이손해보험을 제외한 8개사에서 감소하였음.
 - 수입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신차 판매의 침체 등으로 8개사에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으나 아이오이손해보험은 모회사인 토요타자동차를 통한 해외부문 판매증가에 힘입어 수입보험료가 성장함.
 - 화재보험의 수입보험료도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따른 주택 시공률 감소의 영향으로 정체현상을 나타냈음.
 - 수입보험료의 감소와 함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운용 손실의 영향으로 6개 회사들의 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손보사들은 이러한 원인 외에도 보험료 과당 부과 문제 및 보험금 부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자체 조사 등에 지나치게 자원을 집중 한 나머지 영업활동이 위축된 것이 정체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 보험영업이익은 지난해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줄어들어 보험금의 지급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의 감소로 최종 이익을 개선하지 못하였음.
- 또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도 실적을 악화시켰음.
 - 서브 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이 확대되면서 아이오이손해보험이 31억 엔의 적자로 전환되는 등 4개사가 이익의 감소를 기록하였음.
 - 그룹의 연결기준 서브 프라임 모기지 관련 손실은 아이오이손해보험그룹이 836억엔, 손해보험재팬그룹이 300억엔, 미래아홀딩스가 21억엔,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가 2억엔을 계상하였음.

(FujiSankei Busines I, 5/22)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중국 은행업계가 주택구매 시 지진보험 강제 가입 추진

- 지진으로 인해 야기된 대출금 회수불능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러한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중국 은행업협회가 그 답을 대신함.
 - 이는 지난 5월 21일 중국 은행업협회 부회장 양짜이핑(楊再平)이 앞으로 주택구매 시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임.
- 양짜이핑은 "지진보험 강제가입을 통해 대출금 회수불능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는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로 볼 수 있다며, 일부국가의 경우 상업보험회사에서 지진보험을 판매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보험회사의 지진보험 판매의지가 약해 소비자들이 보험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전함.
 -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불량채권 문제는 지금 당장은 정부의 지원정책(일괄면제 혹은 보상금의 일부를 대출금 변제로 활용)에 의지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앞으로 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에 직면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데, 이 부분에서 주택구입 시 지진보험에 강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최근 의료, 자동차, 교육 등 분야에서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정부에 많은 것을 의지하려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중국증권망 , 5/22)

□ 중국 지진피해, 보험회사가 적극적 구제에 나서

- 5월 12일 쓰촨성(四川省) 대지진은 중국의 현행 구제법률과 위험 보장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보험업계 역시 예외는 1천억 위안에 가까운 재산손실을 기록했지만 중국 보험업계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해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외는 아님.
- 상당수 보험회사가 대규모 보험금을 긴급 투입하면서 송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피해지역 대다수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금번 지진사고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하여 법률적인 보장체계와 대형 재해보험제도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조항’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면책조항으로 인해 보험의 역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자, 일부 보험회사는 특별처리 방법으로 지진피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보험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함.
- 뿐만 아니라 중앙생명(中英人壽)은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약관에 명기된 지진책임면제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배상해 주기로 결정했음.
- 또 민성생명(民生人壽)은 금번 지진 때 보험증서를 분실한 고객에 대해서 증서가 없더라도 신분증만으로 배상해 주기로 결정했으며, 자허생명(嘉禾人壽)은 2,000위안 이하 고객에게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선배상 후처리’ 방식으로 전환했음.
- 이와 같은 보험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지진에 대해 보험회사가 제대로 된 지원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음.

(화하시보 , 5/24)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5.16(금)	08.5.23(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31	5.39	0.08
	美 10년국채	4.03	4.57	3.83	-0.02
	英 10년국채	4.51	4.81	4.91	0.10
	日 10년국채	1.51	1.70	1.74	0.04
주가	韓 KOSPI	1,897.13	1,888.88	1,827.94	-3.23%
	韓 KOSDAQ	704.23	652.56	649.00	-0.55%
	美 DJIA	13,264.82	12,986.80	12,479.63	-3.91%
	美 Nasdaq	2,652.28	2,528.85	2,444.67	-3.33%
	英 FTSE100	6,456.90	6,304.30	6087.30	-3.44%
	獨 DAX30	8,067.32	7,156.55	6,944.05	-2.97%
	佛 CAC40	5,614.08	5,078.04	4,933.77	-2.84%
	日 Nikkei225	15,307.78	14,219.48	1,4012.20	-1.46%
	中 상해종합	5,261.56	3,624.23	3,473.09	-4.17%
	대만 가권	8,506.28	9,217.42	8,834.73	-4.15%
환율	홍콩 항셍	27,812.65	25,618.86	24,714.07	-3.53%
	원/달러	938.2	1,049.40	1,046.90	-2.50
	원/100엔	833.33	1,000.86	1,002.64	1.78
	엔/달러	112.58	104.85	103.28	-1.57
	달러/유로	1.4722	1.5437	1.5769	0.0332
	위안/달러	7.3041	6.9946	6.9435	-0.0511